

通時的 분석에 의한 통도사의 공간구성 수법에 관한 연구

姜榮祚

동아대학교 도시조경학부

A Study on Way of Spatial Composition of Tongdo Temple by Diachronic Analysis

Kang, Young-Jo

Dept. of Planning and Landscape,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 to clarify the way of spatial composition of Tongdo Temple by daichronic analysis. The way of spatial composition was clar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built in architectural system in three periods.

The result are as follows;

1. Spatial composition of Tongdo temple was changed in three period that it were establishment period, 1300s, and 1700s by the transition of meaning structure occuring the transition of spatial composition.
2. It was found out that the way of spatial composition was three through the diachronic analysis the transition of spatial composition in Tongdo temple.
3. Juxtaposition as a way of spatial composition found out through the diachronic analysis is equivalent articulation of three sections: an upper, a middle, and a lower section and polyaxis or polycore in the each sections. Fusion is heterogenetic minglement mingling different kind of buildings and conjugation conjugating different kind of decorations. And accumulation of layer is multilayer laying different time of layer and multi aspect aligning different kind of aspects since the temple' s establishment.

Key Words : spatial composition, juxtaposition, fusion, accumulation of layer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3보 사찰 가운데 하나이며 사찰의 명소인 통도사의 공간구성 기법을 고찰한 것이다.

지금까지 경관디자인에 관련된 연구는 신선사상, 은둔사상, 음양오행, 풍수지리, 장소성, 공간질서, 삼신사상 등 공시적이고, 정태적인 공간구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것은 공간구성을 지배하는 근원적인 원리를 추구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강산과 같은 자연경승지나 정원, 사찰, 유서있는 마을 등 명소들은 어느 한 시기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의 형성에 관련된 조형원리를 사용 주체의 변환된 가치체계에 따라 중첩적으로 집적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공시적인 공간구조의 분석만으로 우리들에게 오랫동안 친숙한 명소의 성립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찬가지로 사찰의 가람배치에는 불교교리라고 하는 가치체계가 공간구성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시기를 고정하여 공간구성의 원리를 탐구하는 방법은 교리의 불연속적 변환을 고려하면 고찰(古剎)의 공간구성 수법을 분석하기 위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창건 이래로 여전히 사찰의 명소로 자리하고 있는 통도사를 대상으로 통시적인 관점에서 공간구성 수법을 고찰하려고 한다.

2. 기존 연구

통도사의 공간구성을 다룬 논문은 경년적으로 변화하는 가람 배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외부공간의 특성을 분석한 것(안영배, 1981), 전각의 부가를 영역 형성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그 영역의 의미를 장소론적으로 정리한 것(한동수와 이해성, 1986), 통도사의 건축공간의 부가를 물리적 실체로서 공간, 장소적 의미, 공간 생성의 가치관, 전각의 시간적 의미의 변화로 파악한 것(이규성, 1985), 일견 불규칙하게 보이는 통도사의 건물 배치를 건물 상호간의 유기적인 질서 관계를 특정 시점에서 획득되는 시각적 구도에 근거하여 건물 배치의 질서를 중층적 전개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것(김광현,

1985). 통도사가 현재와 같은 공간 구성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신라의 탑 중심형 사찰에서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금당중심형 사찰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파악한 것(홍광표, 1991)이 있다. 그리고 영역과 교리의 수용이라는 관점으로 통도사의 가람형태를 역사적으로 정리한 것(김봉렬, 1996)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통시적 관점에서 통도사의 공간구성 수법을 고찰한 것은 아니다.

한편 공간구성에 관련된 논문은 불국사에 있어서 중심성을 구현하는 요소로 위계, 구분, 전이로 정리한 것(홍광표, 1991), 전통공간의 구성 특징을 음/양, 상하의 계급, 공/사(公私), 성과 속, 위계, 대칭/비대칭, 내부/외부 등 2항대립으로 파악한 것(이재근, 1991)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공시적 관점에서 서서 공간구성을 지배하는 원리인 공간구조 또는 의미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통시적 관점에서 서서 공간구성 수법을 다룬 것은 아니다.

3. 연구방법

공간예술의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론은 대략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태도를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공간을 구성한 작가의 의도를 충실히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작가의 창작 노트나 진술, 작가 주변 등이 관찰될 것이다. 이것은 작품은 작가에 의하여 전적으로 해석된다고 하는 관점이다.

한편으로 작가의 의도가 어찌되었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체험자의 몫이라고 하는 관점이다. 작품은 체험자에 의하여 재구성된다. 카라타니는 “‘작품’ 외에 어떠한 철학도 작자의 의도도 전제하지 않고 읽는 것”을 작품을 읽는 것이라고 한다(柄谷, 1990:6). 작품을 체험자에 의하여 창조되는 열린 텍스트로 여기는 태도이다.

본 연구는 후자의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시간축에 따라 누적적으로 구성되고 작가가 부재한 공간의 구성 수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열린 텍스트로서 공간의 자유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겹겹히 커를 이룬 공간의 층위를 한거풀씩 덜어내고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통도사라고 하는 공간의 구성 수법을 고찰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통도사를 구성하고 있는 전각 건립의 역사적 경위와 그 전각들의 용도, 그리하여 성립되는 공간의 성격들을 관련 문헌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난 후 통도사를 통시적 관찰에 따라 공간구성 수법을 병치, 융합, 적층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II. 통도사의 공간 형성과정

1. 통도사의 공간변화

통도사의 공간형성과정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은 통도사를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주요 전각을 중심으로 영역을 형성해 나간 경위로 살핀 논문(한동수와 이해성, 1986)과 탑을 중시하던 창건 초기의 가람배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원리가 실희되고 금당 중심형에서 최근에 와서는 지형에 의존한 가람의 배치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한 것(홍광표, 1991)이 있다. 어느 것이든 통도사의 공간 변화시점을 창건기와 고려말, 그리고 조선 중기로 잡고 있다.

한편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의 공간적인 성격을 사리신앙과 중심성, 미륵신앙과 중축성, 정토신앙과 영역성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의 공간구성의 기법을 교리와의 관계로 정리한 것도 있다(김봉렬, 1996).

여기에서는 이들 논문들을 참고로 하여 통도사의 공간구성의 특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제 1기 : 창건기(646년)

자장대사가 당나라에서 가지고 온 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기 위하여 사리탑인 금강계단을 신앙의 중심으로 둔 시기이다. 창건 당시는 가장 중심적인 시설인 금강계단과 대웅전, 그리고 대광명전, 영산전이 세워졌다. 이들 건물은 646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국불교연구원, 1974:48-78). 각각의 건물은 불교교리를 현시화하고 있다. 금강계단은 사리를 모신 곳으로 믿음의 근원으로, 대광명전은 화엄신앙의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을, 영산전은 석가모니의 영산회상을 재현한 불전으로 석가모니의 불국토로 인식되었다(한국불교연구원, 1974:79. 김봉렬, 1996:90).

그러나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을 모신 대광명전은

화엄신앙이 9-10세기에 비로소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아 자장이 창건한 시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김봉렬, 1996:90).

창건 당시의 통도사는 금강계단을 가장 중요한 시설로 하는 가람배치였다. 그것은 탑중심형의 가람 배열이라고도 표현하는데(홍광표, 1991:145), 지금과 같이 대웅전으로 향하는 축선상에 진입로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광명전으로 향한 진입로가 있었는지 또는 나중에 전각이 부가되고 대웅전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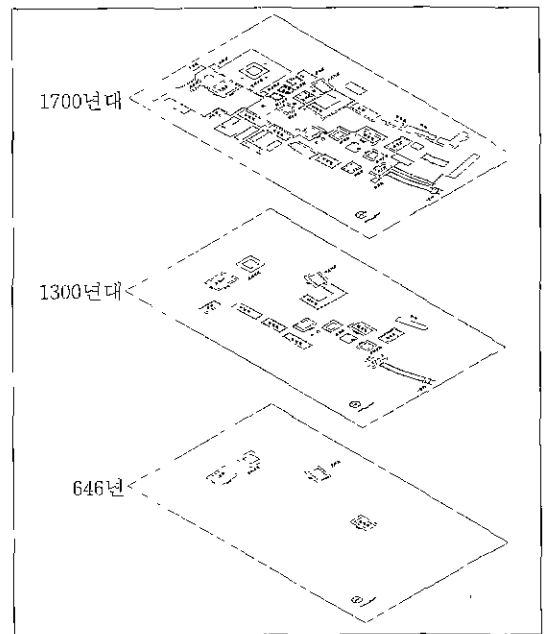


그림 1. 시기별 통도사의 가람 배치

표 1. 통도사 공간 구성의 변화

시 기	공 간 구 성
1기·창건기 (646년)	금강계단과 대웅전, 대광명전, 영산전이 각각 기능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리탑인 금강계단이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2기 (1300년대)	대웅전과 금강계단, 대광명전, 영산전을 핵으로 하여 각각의 영역들이 분절하고 자기 완결하였다. 특히 영산전 일각이 완성되었다. 대광명전 앞에 용화전을 건립하지만 중로전 일곽의 완성은 관음전의 건립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3기 (1700년대)	가람각, 삼성각, 산령각 등 불교교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이질 종교를 가람 안에 혼입하여 가람의 성스러움을 한층 더 뚜렷히 하였다.

사찰의 공간축이 변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금강계단으로 향한 동선과 건물의 축선이 명료하게 지각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홍광표, 1991: 153).

2) 제 2기(1300년대)

1305년 불이문, 천왕문의 건립으로 비로소 현재와 같은 통도사의 진입공간이 정식으로 마련된다. 1317년 대광명전 앞에 황화각이, 1340년에 감로당이, 1341년에는 원통방이 세워지자 어느 때 보다 확실히 시선축과 직교하는 곳에 대응전이 있게 되었다. 또 대응전은 특이한 지붕으로 인하여 건물의 측면 모습이 시야에 드는 중심적 장소로서의 지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1369년 대응전 앞에 명부전을 필두로 대광명전 앞에 용화전, 영산전의 좌우로 극락보전과 약사전을 건립함에 따라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하는 상로전, 대광명전을 중심으로 하는 중로전, 영산전을 중심으로 하는 하로전으로 나누어져 각각의 영역이 독립적으로 완성된 시기이다. 하나 하나의 영역이 하나의 사찰에 맞먹을 정도로 완성된 모습을 갖추었다.¹⁾

통도사 창건 당시의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부속 법당이 배치되었던 것을, 이 시기는 각각의 법당을 중심으로 분절한 후 그 구조를 재편하였다. 그리하여 금강계단이라고 하는 일극구조에서 다극구조로 영역의 의미가 재편집되었다.

이 과정에서 종속적인 관계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던 각각의 법당은 기존의 공간 내에서 각각 하나의 독립된 사찰에 버금갈 정도로 구성된 것이다. 이는 이전과는 달리 각각의 영역이 등가적으로 병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제 3기(1700년대)

1706년 가람각의 건립을 시작으로 1761년 산령각, 1870년 삼성각 등의 불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건물이 통도사 경내에 들어선다.²⁾ 민간신앙의 방편적 수용으로 설명되는 이러한 건물의 난립은 그러나 성역로서 통도사의 위상을 손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층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으로는 1725년 관음전의 건립이 주목할 만하다. 관음전의 건립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대광명전 일대의 공간구성이 대응전으로 향하는 공

간의 진행축이자 시선의 축과 직교하는 공간축을 완성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대광명전은 영산전 일대와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역을 확보한 것이다.

민간신앙의 전각이 경내에 들어선 것은 불교가 민간신앙을 포용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가능해졌다. 그것은 이전의 순수한 불교적 전각만으로 가람을 구성하던 것에 비하면 혁신적인 의미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동시에 교리의 현시적 공간인 가람의 공간구성 수법의 전환을 의미한다.

2. 통도사의 공간변화와 그 동인

사찰 경내의 공간구성은 교리라고 하는 의미구조의 현시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공간의 변화를 그것이 불교적 교리를 현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리의 변화 즉, 교리의 수용을 그 원인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논의는 없지만 예를들면 금강계단으로 대표되는 사리신앙으로 창건된 사찰 경내에 정토신앙과 미륵신앙의 수용으로 용화전, 극락전 등의 전각이 부가되었다고 보는 시각(김봉렬, 1996)³⁾이 있다.

그리고 삼성각, 산령각, 가람각 등 불교 신앙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민간신앙의 시설들이 기왕에 구성된 의미 공간에 혼입, 융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민간 신앙의 시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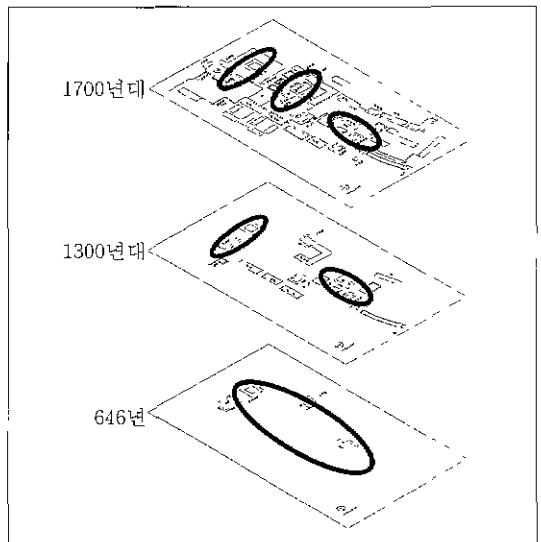


그림 2. 영역의 등가적 분절

혼입되는 것은 통도사의 가람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구조가 변환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공간이 부가되고 기존의 공간 질서가 재편되는 데에는 의미구조의 변환을 필연으로 한다. 가람에서는 이런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공간구성의 변화가 의미구조의 변환을 그 동인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적해두고자 한다.

III. 통시적 관점에서 본 공간구성 수법

1. 병치

1) 등가적분절

공간 전체가 하나의 나무와 같이 하위공간이 상위의 공간을 각각 형성하고 있어서 위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는 이른바 수지상(樹枝狀)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간이 다른 공간과 종속적이지 않은 관계로 구성하는 수법이다.

창건 당시 이미 하나의 완성된 구조로 구성되었던 경내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들어와 거의 혁신적인 모습으로 변환하였다. 사리탑인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대광명전과 영산전으로 구성된 통도사는 사리탑을 중심으로 수직적인 위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1300년대의 대대적인 전각의 부가는 금강계단의 일각과 대광명전, 그리고 영산전이 제각기 분절하여 각각 하나의 사찰과 맞먹을 정도로 독자적인 영역을 점유하게 되었다. 이로써 통도사는 사리탑을 중심으로 하는 애초의 구조가 해체되고 각각 중심적인 법당을 핵으로 분절하여 자기중심을 거쳐 자기완결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등 새로운 구조로 재편되었다. 이와 함께 천왕문, 불이문, 관음전의 건립으로 각각의 영역이 독자적인 사찰과 맞먹을 정도로 구성되었으며(한국불교연구원, 1971: 27) 불교적 종교공간으로서 등가적인 관계를 이루며 경내에 동거하게 되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간구성 수법은 등가적 분핵 또는 분절이다.¹⁾

2) 다극/다축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창건 당시를 일극

체제라고 한다면 1300년대 이후 각 영역이 분절되고 서로의 관계가 동가적으로 변모함에 따라 자연 다극체제로 변화되었다. 그것은 금강계단이 여전히 통도사의 가장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광명전도 주위에 용화전과 관음전이 금강계단과 대웅전과 병렬하고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그에 못지않은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영산전도 극락전과 용화전을 포용하고 있어서 이미 독립된 사찰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 등의 부가는 어느 때보다 대웅전을 정점으로 한 공간구성의 축을 뚜렷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면적인 대웅전의 형상으로 인하여 금강계단으로 향한 동선이 회유하도록 되었다. 또 대광명전과 영산전이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이 축과 직교하는 축이 새로이 설정되게 되어 오히려 대웅전으로 향한 축선의 독보적인 지위는 상실하게 되었다.

여기서 확인 되는 것은 다극, 다축의 공간 구성 수법을 통하여 중심의 회박화, 또는 역설적으로 중심의 강조가 체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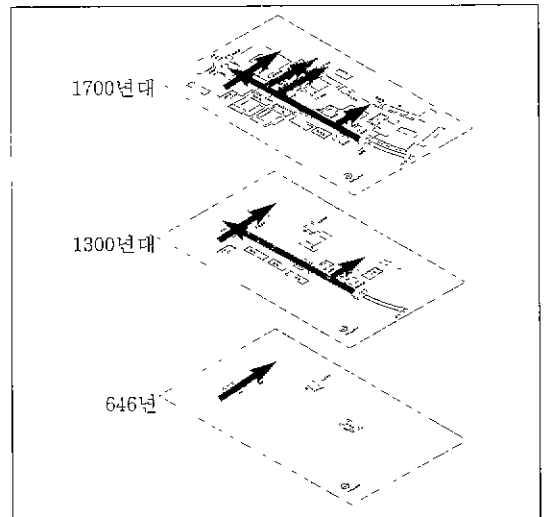


그림 3. 다극/다축

2. 융합

1) 이중혼입

1700년대에는 통도사에 또하나 부가되는 요소가 있다. 바로 가람각이다. 1706년 도량을 수호하는 가람신

을 모시기 위하여 천황문 옆에 가람각을 건립하였다. 1761년에는 산신각을 금강계단 옆에 더한다. 산령각은 호랑이를 거느리고 있는 산신탱을 모신 곳이다. 1870년에는 삼성각을 역시 대웅전 북쪽에 건립한다. 삼성각은 삼성(三聖)과 칠성, 독성을 모신 곳이다.

이상과 같은 건물은 용도로 보아 불교적인 교리와는 무관한 이질적인 종교 공간이다.⁵¹⁾ 이런 공간은 대개의 사찰에서 산견되는 것으로 이런 민간신앙적인 공간의 도입을 불교 교리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방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순수한 불교적 공간에 이종혼입이라고 할 수 있는 융합의 공간 구성 수법은 공간의 동질성을 혼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교적 공간의 성스러움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속(俗)의 부가로 성(聖)의 깊이를 자각하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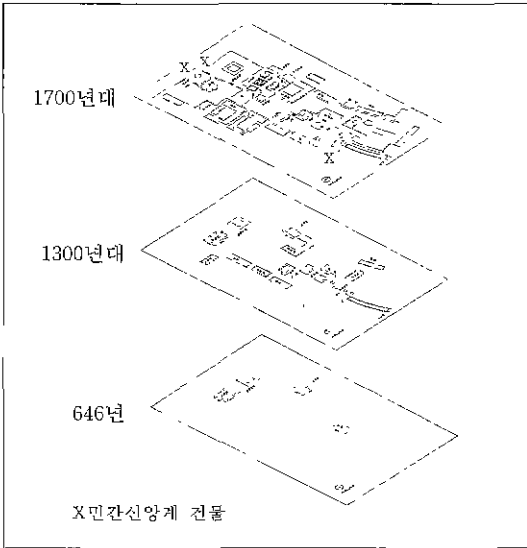


그림 4. 이종혼입

2) 접합

대웅전은 646년 통도사가 창건될 당시부터 존재한 건물이다. 다만 현재 우리가 보는 건물은 1641년에 증수된 것이므로 창건 당시의 건축양식은 확인할 수 없다. 대웅전의 다면적 지붕 형태가 언제 확립된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다만 평면형태에 관해서는 정방형에서 증수 때 장방형으로 확장된 것만은 기단부의 형태적 상이에서 확인될 수 있다.

기단부는 창건당시의 연화문양의 기단 우측에 있던

부분이 확인된다. 창건당시의 기단부에는 대웅전의 평면적을 확장하면서 기단을 새로이 마련하거나 창건 당시의 연화문양을 인용하지 않고 접합한 것이다.

3. 적층

1) 중층

통도사 공간 구성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시공간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웅전 건물에는 신라 때의 기단과 중수시에 접합한 조선 때의 기단이 공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조선 때의 건축이 서있는 등 하나의 건축에서 달리하는 시공간이 병존하고 있다.

중첩된 시공간의 예로 창건 당시에 구축된 대광명전, 금강계단, 영산전 등 중심적인 건물배치라고 하는 골격은 그대로 둔 채 새로운 법당과 부속건물들을 추가해 가는 수법을 들 수 있다. 목조 건축의 내구성을 생각하면 창건 당시의 건축의 잔존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오래된 건물을 증수할 때나 부속 건물을 추가할 때 가람의 전면적인 재배치가 가능했다는 점을 가정하면 현재의 통도사의 가람 구성은 오래된 가람의 배열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건물을 추가하는 형식 즉 시간적으로 중층적인 공간구성을 하였다.

1305년부터 일주문, 불이문의 건립으로 시작되는 의미적 공간구조의 해체. 재편에도 646년 창건 당시의 금강계단, 대웅전, 영산각, 대광명전이 이루는 기초적인 공간 구성을 유지한 채 거기에 새로운 의미공간을 겹쳐온 것이다.

2) 다상접합

통도사 경내의 건물의 부가는 시환경에 있어서도 새로운 구도를 창출하게 된다. 말하자면 새로운 법당과 부속 건물의 부가가 닫힌 영역에서 기존의 시환경을 순수하게 지키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환경에 새로운 건물이 이루는 상(相 : aspect)을 추가하여 새로운 구도를 허용하고 있다.

예로써 관음전의 건립에 의한 구도의 다상 중첩을 든다.

관음전이 건립되기 전까지 불이문에서 획득하는 시환경의 구도는 대략 다음과 같았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참배자에 왼쪽에 감로당, 원통방이 일렬로 서 있고

황화각, 용화전이 우측에 시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서있다. 불이문이 원통각에 약간 치우쳐 있다는 것과 천왕문에서 불이문으로 다가가는 동선축의 연장선상에 대웅전이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시선은 여전히 대웅전으로 향하여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야를 60도로 보는 콘설(cone說)에 따르면 불이문에서 획득하는 구도의 왼쪽 시야는 시선과 평행한 전각으로 인하여 의식야를 대웅전으로 향하게 하는 반면 오른쪽은 자연스럽게 금강계단이 차지하게 된다. 이것을 구도의 성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불이문에서 보는 경관의 구도는 대웅전과 금강계단이 이루는 상(相), 그리고 용화각, 황화각, 원통각, 감로당이 대웅전으로 향한 비스타를 이룬 상(相) 등 두 개의 상(相)이 중첩하여 구성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1300년대 불이문의 건립 이후, 1725년 관음전이 건립되기 까지 대웅전과 금강계단이 시환경의 구도상 등가적인 의미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대웅전과 금강계단으로 형성된 하나의 상(相)은, 관음전의 건립으로 형성된 상이 대웅전과 황화각 사이에 끼여듦에 따라 시야의 오른쪽을 점유하고 있던 금강계단의 상(相)에 겹쳐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불이문에서 펼쳐지는 경관의 구도는 관음전의 측면이 만들어내는 상이 금강계단 부분인 오른쪽에 덧붙여지게 되어, 금강계단의 시각상이 상실하게 되었

다. 더구나 관음전의 박공 지붕과 대웅전의 박공 지붕이 이루는 각각의 상이 하나의 시야에서 겹쳐져서 보이게 되어 불이문에서 보는 대웅전의 거리감이 현저히 축소되고 아울러 건물의 연속성과 비스타가 강조되게 되었다.

이 결과 금강계단은 불이문에서의 시야에서 사라질 뿐 아니라 대웅전과의 시각적 연계성이 약화되었다. 시선과 동선의 중심에는 대웅전이 자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웅전 건축의 다면성은 동선을 회유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금강계단을 통도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두게 되었다.

표 2. 공간구성 기법

공간구성 기법		개요
병치	등가적 분절	각각의 영역이 서로 차이의 체계 속에서 관계의 그물로 얽혀 등가적으로 분절됨
	다구/다축	중심의 회박화, 또는 역설적으로 중심의 강조가 체험
융합	이종 혼입	불교의 직전적으로 무관한 이질적인 성격의 요소가 혼입되어 오히려 불교적 공간의 성스러움을 강조
	접합	이질적인 재료와 장식적으로 접합하여 이질 양식의 문양으로 마감함
적층	중층	시간축에 의한 공간의 누적적 부가
	다상 접합	상(相)의 부가로 인한 시각상의 다상화와 접합에 의한 새로운 구도의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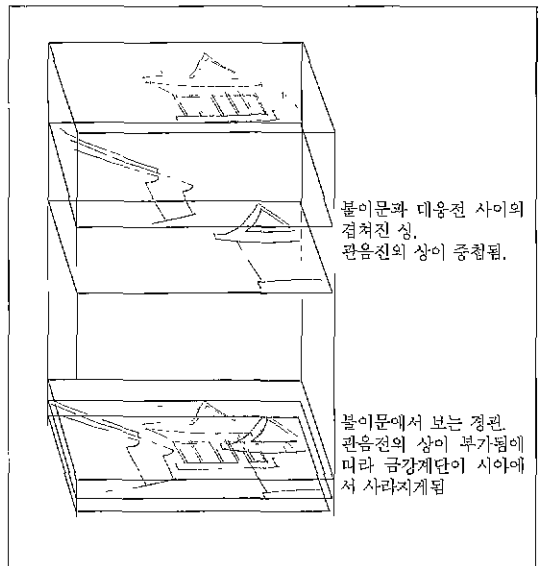


그림 5. 다상접합

N.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통도사의 공간구성 수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창건 초기의 공간구성을 지배하는 의미구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구조로 변환되고,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가람의 구성이 변환하였다. 거기서 보는 공간구성 수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가지지를 고찰하였다.

창건 당시와는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도사는 세 영역으로 분절되었고, 이들 영역은 통도사를 구성하

는 요소로서 등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등가적 분절과 창건 초기의 일극 구조에서 영역의 분화로 야기되는 다극/다축에 의한 병치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불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건물도 도입, 혼입되는 이중혼입과 대응전의 확장 중수 시, 창건 초기의 기단 양식에 이질적인 장식 분양을 접합하는 융합. 그리고 세 번째는 예전의 공간과 새로운 공간이 시간축에 따라 중층되어 있는 양상과 구도의 변화를 야기하는 다상접합이라는 적층이 확인되었다.

통도사는 이전에 형성된 가람과 새롭게 부가되는 가람이 서로 병존하고 접합되면서 적층되어 있다. 따라서 통도사의 공간구성 수법은 어느 한 시기에 완성된 닫힌 구조가 아니라 늘 변환하는 열린구조이다.

곳으로 보고 있다(김봉렬, 1996) 이는 각 영역의 중심적인 진각에 모셔진 부처에 의하여 추론한 것이다

주4. "등가적 분절"은 형성된 영역이 통도사에서 등가라는 의미이다. 어떤 사물의 가치는 그 사물 단독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물과의 관계의 그물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차이의 체계에서는 사물의 근원적인 가치란 없으며 그것은 단지 다른 사물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한다 諸法空이란 바로 이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물은 등가(等價)인 셈이다.

주5 주2)참조.

필자 주 이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교수 해외파견 연구지원(과제명 名所의 通時的分析에 의한 景觀디자인 수법의 개발)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 결과의 일부이다

인용문헌

- 주1. 한국불교연구원이 저술한 「통도사」(1974) 27쪽에는 상로전의 중심이 되는 법당은 금강계단과 대응전이고 중로전의 중심은 대광법전과 용화각이고 하로전의 중심은 영산전과 극락전에 있다. 이를테면 이들은 각각의 독립된 사찰과 맞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여 각각의 영역이 하나의 독립된 사찰과 버금가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 주2. 한국불교연구원이 저술한 「통도사」(1974) 54쪽에 "우리나라에 (중략) 불교는 토속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음이 사실이다. 그러한 자취는 현재도 사찰내의 몇몇 전각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가까운 예가 바로 산신각과 칠성각 등이라고 하겠다. 산신은 산악 숭배에서 나왔고, 칠성은 결국 도교 신앙과 관련이 깊은 데, 이 둘 중에서 칠성신앙은 이미 중국에서 형성된 것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이고, 산신 신앙은 불전 안에 그 근거가 없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는 없었고, 이조에 들어와서 차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하여 산령각과 삼신각이 불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설이라고 한다
- 주3. 김봉렬은 하로전을 정토신앙이 구현된 곳으로, 중로전을 미륵신앙이 구현된 곳으로 상로전은 사리신앙이 구현된

1. 김광현(1985) 통도사의 중층적 전개에 관한 형태 분석. 대한건축학회지 29권 122호. 10-15
2. 김봉렬(1996) 불교적 건축이론-통도사, 이상건축9602 81-99
3. 안영배(1981) 통도사 가람 배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5권 98호: 3-8.
4. 이규성(1985) 정연한 건축 체계로서의 통도사 건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 61-68
5. 이재근(1991) 한국정원의 전통성 구현을 위한 설계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9(1) 61-80.
6. 한동수, 이 혜성(1986) 통도사 영역의 형성과정과 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 15-28.
7. 홍광표(1991) 신라사찰의 공간 형식 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홍광표(1991) 토함산 불국사의 경관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9(1): 81-97
9. 한국불교연구원(1974) 한국의 사찰1. 통도사 서울 일지사
10. 柄谷行人(1990) マルクスその可能性の中心.講談社學術文庫 東京 講談社